

여성자치연합(가칭) 961223

안건1. 연대항쟁, 한총련 사태 또는 연대 사태라고 불리워지는 지난 여름 우리학교에서 있었던, 여학생들의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성추행 사건에 대해...

현재 가해자에 대해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소가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대에서는 이에 기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여러 대학이 함께 서명운동에 참여해 줄것을 부탁해 왔습니다.

안건2. 각 단위별 커리정리에 관한 건.

당장 시작할 수 있고,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자치연합이라는 기구만 띄워 놓고 일정한 교류가 없게 되면 이름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각 단위는 커리정리를 함으로써 나름대로 자신들의 색깔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여성자치연합과 어떤 식으로 결합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부에서 자료를 얻고자하는 자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커리를 정리해서 자료화하는 것이 곧 여성자치연합의 내용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지 책이름만을 나열하는 식이어서는 안되겠지요..

안건3.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하 오티)을 학교측에서 전담하겠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학교측의 입장과는 별도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오티를 할 것인가'에서부터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등등의 논의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오티를 하자는 의견이 모아지면 오티 기획단을 따로 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건4. 여성자치연합 내부조직체계(?)에 관한 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구만을 띄워놓고 그것에 합당한 활동이 없을때는 그것은 유명무실해지게 됩니다. 일단 함께 무엇인가 해보자는 것에는 합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일단 일을 시작하면 굴러가기는 하겠지만, 자칫 일에 묻혀 버릴수도 있다는... 우려가 드네요... 지속적인 고민과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 여성자치연합은 어떤 것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체계가 달라지겠죠.